

신영각 목사 신영기 사모 장학기금



신영각 목사와 신영기 사모는 신앙과 다문화 경험, 그리고 사역에 대한 깊은 헌신의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은 모두 열 여섯 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주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가치관 속에서 성장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훗날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을 연결하는 목회와 공동체 사역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신영각 목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을 졸업하였으며, 32년 이상 목회 현장에서 섬겼다. 그는 다양한 문화권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고, 특별히 미주 한인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세대통합(transgenerational ministry) 사역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클레어몬트 신학교로부터 명예 Doctor of Divinity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20년 담임목회에서 은퇴하였으며, 2022년부터 Mongolian Trinity Bible College의 학장으로 섬기며 몽골의 차세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신영기 사모는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였다. 그녀는 사회학과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으며,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지혜를 바탕으로 남편과 함께 사역의 비전을 세웠다. 특별히 미주 한인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다.

신영각 목사와 신영기 사모는 CST 기숙사와 공동체 안에서 세 딸을 양육했다. 그들의 가족은 CST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은 성장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들은 당시 학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많은 추억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신영각 목사와 신영기 사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가운데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특별히 다문화와 세대를 통합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래 지도자들이 견고한 신학 기초와 문화 이해,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갖추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하고 있다.

신영각 목사와 신영기 사모는 이 장학기금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지혜와 공휴,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길러내어 세대를 넘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다.

